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어나간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좋은 소비품을  
함흥편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조국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5월 몸소 함흥편직공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재단을 잘하여 더 많은 천을 절약하고 기술혁신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여러가지 편직물을 더 많이 보내주시려고 아직은 어설플까 그지없던 공장에 찾아오시여 위대한 사랑의 자욱을 뜨겁게 새기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날의 자애로운 모습을 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하기에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공장에 깃들어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갈 열의에 넘쳐 편직물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기세를 올려온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 편직물증산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가자.

서경철,조성숙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편직물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편직물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혁신자축하모임,공장기동예술행동대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현장과 구내길에 속보판들이 련속 나붙어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고조시켰다.

직장,작업반들에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 배워주고 배우면서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갔으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매일,매달 계획을 여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즐기치게 벌려나갔다.

뜨개천과 뜨개옷생산을 맡은 제직직장과 염색직장,재단직장, 1가공직장, 2가공직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혁신의 앞장에 섰다.특히 2가공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기술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간진 일손씨를 발휘하여 공장적으로 상반기계획을 남먼저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양말제직직장과 양말가공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기술자들은 공정간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양말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지난 6월말까지 상반기인민경제계획을 1 2 4 %로,뜨개옷과 양말생산계획은 각각 1 0 3 %, 1 0 2.7 %로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기술자들은 더 높은 생산성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일 불타는 일념안고 계속 혁신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동석

